



### 성공의 열쇠는 정직함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의심하게 되고 매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정직함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운도 따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신용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람들과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호평을 얻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성공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국의 한 일화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피난길에 오르고 있었다. 서울 시내를 피난길을 떠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가기 위해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 사나이가 가방을 든 채 은행으로 바빠 들어가고 있었다. "여기 빌린 돈을 갚아 왔습니다." 사나이가 서류가방을 열면서 말했다. "빌린 돈을 갚았다고요? 이 난리 통에? 대출 장부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시나. 당신의 대출 장부도 분실되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사나이는 잠시 어떻게 할까 망설였습니다. "지금 내가 빚을 갚아도 그 돈이 이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거듭한 끝에 기어코 빚을 갚기로 결심했다. 사나이는 은행원들에게 빚을 갚았다고 말하고는 그 대신 그 영수증에 그 은행원들의 도장을 찍어줄 것을 요청했다.

얼마 후 또다시 급하게 용자가 필요해진 그는 부산으로 잠시 자리를 옮긴 은행본점을 찾았다. 그러나 전정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출신청은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는 대출 받기를 포기한 채 은행 문을 나서다가 문득, 자신이 서울에서 갚은 빚이 잘 정리되었는지 알아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예전에 받은 영수증을 꺼내서 대출담당 과장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 한 장의 영수증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 영수증으로 자신의 신용을 증명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용자를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대출 받은 자금과 신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그것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유리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정직함'으로 크나큰 일을 해낸 '그'는 바로 한국유리 주식회사의 설립자 최태섭 회장이다. 그를 사업가로 다시 일어서게 만든 자본은 바로 이렇게 축적된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한다. 이들이 가는 길은 결코 빠르지 않다. 답답하다. 하지만 신뢰를 얻기 때문에 큰 위험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최소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의 삶은 평온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겨운 신념이 빛을 발한다.

비즈니스에서 '정직'은 매우 중요한 잣대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의심하게 되고 매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야 미주하겠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반면 신뢰가 쌓인 관계라면 그 사람만 보고도 회사를 믿을 수 있다.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사업 파트너로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게다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온다.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평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최고자신인 신용자본을 쌓는 것은 장기간이 소요된다. 최태섭 회장과 같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장기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진짜 욕심쟁이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직함으로 무장한 신용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문화가 바람직한 선진국 비즈니스의 표본이며 흔들리지 않는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을 이루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오늘은 박쥐자세의 구체적인 효능으로 문을 열겠다. 박쥐자세는 허벅지 안쪽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잘되게 하므로 무릎과 허리의 관절을 원활하게 만든다. 특히 뒤틀린 골반을 바르게 하여 생리불순, 불임증, 자연 분만에도 효과적이다. 간장기능이 저하된 사람일수록 어려울 수 있으나 꾸준히 수련하면 간장기능도 좋아진다. 허벅지안쪽의 힘을 집중하는 박쥐자세를 통해 아랫배와 생식기 부분을 강화해보자, 수니의 요가교실을 보시고 매일 20~30분씩이라도 따라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은 어떤 보약보다 최고임을 필자는 확신한다.

### 혈액순환을 좋게~ 박쥐자세

**동작①:** 두 다리를 좌우로 확장하고 무릎을 펴고 허리를 세우지 않는다. 초보자일수록 발끝을 펴준다 양손은 허벅지 위에 놓는다. 복식호흡으로 20초 유지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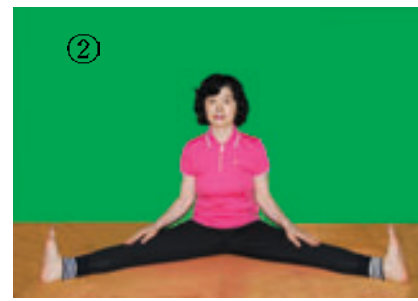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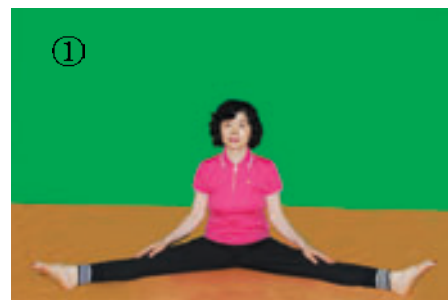
**동작②:** ①번 자세로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긴다. 20초 유지, 5회.

**동작③:** 숨을 마시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 배꼽, 가슴, 이마 순으로 전굴한다. 20초 유지, 5회.

**동작④:** 숨을 마시면서 양팔을 수

평으로 펴고 숨을 내쉬며 팔을 크로스한다. 20초 유지, 양쪽 3회.

**주의:** 상체를 들어 가슴과 허리를 펴준다. 각 동작은 능력에 따라 수련한다.\*



## 昔之得一者

석지득일자

### 옛날 도와 하나를 이루게 된 것

#### 도덕경 39장 해설

노자의 도덕경을 들여다보면 자연의 풍경과 만물을 노래하고, 그러면서 그 이면의 숨은 사물의 이치와 진리를 터득하여 인간의 참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과 만물은 인위적이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아 우리의 본성을 닮아 있다.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 이것이 도의 실제이기도 하거나 인간의 본 모습인 까닭이기도 하다.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것은 도와 거리가 멀다. 사람도 도를 가까이 한 사람은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그에겐 마치 하늘, 땅, 계곡, 물에 대하듯 잠입하고 아름답게 생명에 찬 에너지가 충만하다. 그러나 도와 거리가 먼 사람은 웬지 가지 같아 찌르고, 수채구렁 같아 악취가 나고, 맹수 같아서 언제 할랄지 몰라 불안하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세태는 이와 같은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심화될수록 예스런 인간미 넘치는 과거로의 회귀를 동경하고 흠모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래서 책과 방송매체는 유행처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고자 한다.

노자의 도덕경을 가까이 하는 많은 사람들도 도를 알고 깨달아서 참다운 인간간의 진면목을 회복코자 하는 의지가 다분하리라 본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된 인간의 탈을 벗고, 진실한 인간의 참 성품을 밝히 알려 주는 도덕경의 진수를 본인의 것으로 체화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 장을 통해 도의 본체인 인간의 순수본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보자.

昔之得一者(석지득일자): 옛날 도와 하나를 이루게 된 것이란

이룬 것으로서 맑고

地得一以寧(지득일녕): 땅은 도와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서 안정하고

神得一以靈(신득일령): 신은 도와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서 신령하고

谷得一以盈(곡득일영): 골짜기는 도와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서 차게 되고

萬物得一以生(만물득일생): 만물은 도와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서 살게 되고

侯王得一以爲天下貞(후왕득일이위천정): 제후나 왕은 도와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서 천하를 굳게 한다

其致之(기치지): 그 도와 하나 됨을 내버리게 되면

天無以清(천무이청): 하늘은 맑지 못하여

將恐裂(장공령): 아마도 쪼개질까 두려워하겠고

地無以寧(지무이녕): 땅에서는 안정이 없어져

將恐發(장공발): 아마도 불거져 올라올까 두려워하겠고

神無以靈(신무이령): 신은 신령함이 없어

將恐歎(장공탄): 아마도 영험함

이 그칠 것이며

谷無以盈(곡무이영): 골짜기는 차지 않아서

將恐竭(장공갈): 아마도 마르지 않을까 두려워하겠고

萬物無以生(만물무이생): 만물이 생장하지 않아서

將恐滅(장공멸): 아마도 멸망할까 두려워하겠고

侯王無以貴高(후왕무이귀고): 제후나 왕이 귀하고 고매함이 없어져서

將恐蹶(장공궤): 아마도 폐하게 될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故貴以賤爲本(고귀이천이본): 고로 귀한 것은 천한 것이 바탕이 된다.

高以下爲基(고이하위기): 높은 것은 낮은 것이 바탕이 된다.

是以後王自謂孤寡不穀(시이후왕자위고과불곡): 그러므로 제후나 왕은 스스로 외롭고 과부 같고 작으며 곡식갈지 않아

此非以賤爲本邪 非乎(차비이천이본야비호):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천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故致數譽無譽(고치삭예무예): 고로 영예로움에 이르는 것은 영예로움이 없어야 하며

不欲碌碌如玉(불욕록록여옥): 고귀한 옥과 같은 복록을 욕심 부리지 말지며

珞珞如石(낙락여석): 불 폼 없는 돌과 같아야 하느니라\*

김주호 기자

#### 허만욱 승사 칼럼

### 손은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말해준다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들께서는 배가 아프다는 손자의 배 위에 손을 대고 계속 문지르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를 되뇌이셨다. 그러면 어느새 통증이 사라지는 예를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것은 손으로부터 나오는 모종의 활력으로 환자의 병든 기(氣)를 제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생체에너지인 기를 발산하여 타인에게 전달하기 가장 적절한 부위가 바로 손이다. 두통이 올 때 자신도 모르게 이마에 손을 대거나 배가 아프면 배에 손을 대는 등 이른 곳으로 손이 먼저 간다. 이것을 보아도 "내 손이 약손이다"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 수 있다.

신과학의 핵심요체인 기 에너지는 우리 몸으로부터 일과 같이 전 성도들이 생체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두 손바닥을 강타하면서 찬송과 박멸소탕을 외치고 있는 동안 핏속에 숨어있는 마귀의 영을 깨끗이 소멸시키고 있다. 마귀 영을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은 매일과 같이 제단을 오가면서 주위의 오염된 공기를 맑히는 엄청난 일을 남몰래 행하고 있는데도 이 귀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이승신신의 주인공이신 승사구세주님이 알 따름이다.\*

조한 작지만 위대한 원자들", "원자, 인간을 완성하다", "우리는 원자다"라고 외치고 있다. 원자 속에는 핵과 중성자가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 +, -는 음양의 성질로 마귀의 속성이다. 중성자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며 빛이므로 인간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

인간이 신이요 몸 자체가 원자인데, 손바닥은 우리 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많은 정보와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각종 사건의 해결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몸에 생긴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금융결제시스템의 주요 수단으로까지 각광받고 있다.

승리제단에서는 매 일상 방사(放射)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이른 곳에 손을 대는 것도 손이 기의 방사구임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기(氣)는 가공의 존재가 아니고 생체에너지로서 실존하며 몸속을 흐르는데 그 통로를 경락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육체는 물질로 즉 피와 살로써 구성되어 있는데, 피는 생명이요 영이므로 결국 원자나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 자연과학자인 커트 스테이저 박사는 "인간과 지구, 우주를 창



天得一以清(천득일이청): 하늘은 도와 하나를 이루게 된 것

- |                        |                       |                      |                      |                      |                      |                              |                         |
|------------------------|-----------------------|----------------------|----------------------|----------------------|----------------------|------------------------------|-------------------------|
| 역곡제단 : (032)343-9981-2 | 부산제단 : (051)863-6307  | 마산제단 : (055)241-1161 | 사천제단 : (055)833-7866 | 광주제단 : (062)524-4555 | 神戸祭壇 : (078)862-9522 | 神奈川祭壇 : (045)451-3150        | London : (0208)894-1075 |
| 수원제단 : (031)236-8465   | 영도제단 : (010)6692-7582 | 진주제단 : (055)745-9228 | 포항제단 : (054)292-5455 | 대전제단 : (042)522-1560 | 下關祭壇 : (0832)32-1988 | Philadelphia : (215)722-2902 |                         |
| 안성제단 : (031) 673-4635  | 김해제단 : (055)327-2072  | 울산제단 : (052)291-1849 | 순천제단 : (061)744-8007 | 청주제단 : (043)233-6146 | 女山祭壇 : (0942)21-4669 |                              |                         |
| 평택제단 : (031)652-6438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진해제단 : (055)544-7464 | 정읍제단 : (063)533-7125 | 금마제단 : (063)853-6673 | 岐阜祭壇 : (0584)32-1350 |                              |                         |
| 이족제단 : (031)672-6786   | 대구제단 : (053)474-7900  | 영천제단 : (054)333-7121 | 군산제단 : (063)461-3491 | 橫濱祭壇 : (045)261-6338 | 大阪祭壇 : (06)6451-3914 |                              |                         |

####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6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습디다